

佛 教 第 四 十 五 卷

上佐가 되겠다 할 사람이든 그 사람이 아니하더라도
 不具者이거나 善惡을 不計하고 모다고 말하고 만생과
 하여一邊本山으로 度牒을 請求한 다 僧籍을 手續한 다 慈
 願을 發하여 이르나며 或은 衣服, 糧食, 器皿等을 가만
 히 助成하면 그 사람도 갖다 써와야 하고 泰然한 생과
 으로 動心이 되지 아니하며 누가 無依無托으로 行路의
 病者가 呻吟한 다 다 하면 아! 업어 다 救療을 하여야 지
 누가 장가를 갈라 인대 婚需準備가 업당나 다 하면 아! 債
 務라도 내어서 限二十圓보래 주어야 할 걸하고 即時出債
 하여 補助하니 그 힘으로 數百圓의 債務을 비술날이 茫然
 하다. 心性이 이와 가 되면 까닭에 누구라도 崇拜하지 안
 느니는 업는 모양이다 山下洞民은 一週日에 몇번 糧食食
 을 보래 여 줄지라도 歡喜心으로 待遇하며 和尚이 衆人을
 取扱하는 까닭에 法律抵觸도 或發生되지 마는 關係官廳
 은 檢覈정住持는 故意가 아니란 諒解로 畢竟쪽 주머니가
 되고 말뿐이다 한다. 歲入數百石이 드는 寺院에는 僧數
 라야 몇백이나 되는 것이 輒輒도 업지 안 된마는 當寺는 在
 活僧이 원제 안코 歲入이 업는 까닭에 모다 勸諭을 하여야 생
 다. 또 細流를 가 의지 아니하니 그 結果는 大海가 되고 대

海가 되고 보나 大魚가 업지 안 흥과 가라서 智愚를 不擇하
 니 龍蛇가 混雜되고 龍蛇가 混雜되니 그 眷屬中에는 相當
 한 資格도 업지 안 라 한다.
 아! 無我와 平等의 效果는 和尚을 두고 불어 것이 아님
 가 釋尊께서 羅漢羅外에 한子息을 더 두리 라 생과 하였드
 면 四生의 他家翁이 되지 못하였슬 어 것이오 王宮을 長
 時로 직히 리라 하였드면 大千界로 都化境을 삼지 못하였
 슬 어 것이오. 내가 업는 곳에 眞我가 따라 잇고 내가 업는
 곳에 大凡業을 成就하고 내가 업는 곳에 如意寶가 隨在이
 다. 外書에 眞은 眞상 「後其身而身先하고 外其身而身
 在」라 함이 金石의 論이 아니신가 그러나 和尚이 短處가
 업다고는 생과 어 아니 된다. 自己所有에 蕩無纖塵은 거
 록하다 하겠스나 三寶常住物까지 奪트려 노코 그 모양으
 로 지내 가니 寺價는 淸淨할 날이 수히 업고 따라 질 모양도
 될수 업는 뜻함애 住持資格은 아니라고 酷評을 하느니도
 잇는 듯하다. 呀! 「終日數他寶에 自無半錢分」이라困
 하니 잠이나 자고 明朝부러 調查에 着手하자 그만 할 흥과
 기지개로 黑話鄉에 드리섯다. (未完)

退 耕 스 님 개

가 랫

풀에 사지 못해 산으로나 가랏더니
 님은 산에서 풀로 나려 오시려나
 그러면 우리갈 곳이 산도 풀도 잇는 데가
 구름같이 내 마음은 한술로나 떠돌래도
 다만 바람이 땅에 드지 아니해라
 한길은 한길은 앞으로 나가갈 뿐이여라
 처음 밟어 가는 그 길을 새길 이 밟가
 몇천만 밟자욱이 케케이 쌓였나니

가는 길 다르다 해도 가고 보면 한골이 리
 치위도 어중도 다 가고 봄새벽이 밝어 온다
 살따다 풀따다 새빛이 들어나고
 송이든 땅비데 풀도 잠을 깨어 울추인다
 괴롱계도 기다리든 그봄이 이제야 오니
 덩굴하든 가슴안도 스스로 풀리려 한다
 이가슴 님의 손으로 만지면 그일마나 밤가우리

漢 詩

彭 鑑 清

詠 菊

其一

歲月如流水 黃花益我思 高懷容世淡 素質入秋宜

堪友冰心客 從聯風露詩 好携籬畔月 不負隔年期

其二

佛 教 第 四 十 五 卷

秋心吟別圃 故石漱寒香 有酒南山近 無家北雁忙

世冷人情淡 風高月露涼。惟憐三徑影 向晚尚餘芳。 年年零落怨東風

其三

得晤東籬客 悠悠性自閑。盤書馳北郭 鶴杖寄南山。 歲月催銀髮 風霜老玉顏。浮名滿濁世 不禁憶陶潛。

其四

故國繁華夢 三秋獨放時。清芬園素早 晚節歲榮遲。 寒露灑千點 芳心淡一枝。自從陶令後 無復世人知。

駒澤大學訪友

送友去臺北 歸途駒澤遊。林深開燕語 地僻隱鴻儒。 禪定調狂象 圖書負犂牛。閑亭寂靜日 明月幾登樓。

夜月

天涯一片多情月 客夜窺窓每伴眠。只待悄然人睡去 無聲移過枕頭邊。

落花 次韻

雨過餘香滿地顏 枝頭紅粉已成堆。呼童收拾埋芳塚 莫使痴禽飛去來。 六朝金粉墮隄空 幾見繁華轉眼中。何事殘紅飄不盡

秋日書懷

故我依然嘆奈何 韶華似水等閒過。人間有士知音少 客裏無端別恨多。眼底星霜銷易盡 胸頭豪氣總難磨。 年來幾許憂愁事 暫借銅琶一曲歌。

紀夢

靈巖飛翠夢中看 作法誰登瀛頂壇。寶鐸三聲鳴上谷 降魔一杵隱層層。神光此日開心地 幽境何年復靜觀。 寂寂秋鈴殘夜裏 依然小雨覺單寒。

寒夜獨坐

久坐涼生几 簡然悟道微。欲留窗上月 終夜莫云歸。

觀楓漫吟

客思秋深日 流霞滿萬山。幽情埋恨者 不忍對紅顏。

佛敎彙報

中央禪院解制

去二月六日是陰歷正月十五日即該當哈으로州京城府壽松洞覺皇敎堂內에 있는朝鮮佛敎中央禪院에서는冬安居를圓滿히 마치고解制法要를執行하였는데安居大衆은左와如하더라

李九海 李南華 李漢庵 金學洙 羅燈庵 洪性珠 李允根

龜岩寺布敎堂에

法華經大講演會

未曾有의大盛況

全北全州郡豐南町에在한龜岩寺

佛敎第四十五號

布敎堂에서는院主林鍾山師外信士

金和炯 朴基東 白庸熙 宋潤燮

鄭承讓 李冬吉氏外十餘人의發心

主權로講師映湖和尚을請遊하여本

年陰正月十一日早에法華經講演會

開始하여同十七日外지에全部를終

了하였는데每日聽講大衆은四部를

通하여七八十員에達함으로儼然히

靈山法會를形成하였고終講하든翌

日에는全州音樂會一同이演奏하여

妙音으로州靈山法會를供養하였다

한다 (全州)

巴里에서錦還한

文學士金法麟氏

歸國最初大講演

慶尙南道大本山東萊郡梵魚寺法侶金法麟氏가佛國에서多年間苦學中일은一般이稔知하는바昨年春에巴里大學을卒業하고文學士의學位를얻어가지고今年一月에還國하였는데去二月十四日下午三時에는梵魚寺主權로同寺佛敎講院內에서大講演을開하여該氏의抱負를傾瀉하여歸國後第一回師子吼를지냈고으로一般聽衆은滿足과未曾有를맞기었다더라 (梵魚)

大本山乾鳳寺住持

貧寒者의換聿

을救助

江原道高城郡大本山乾鳳寺住持